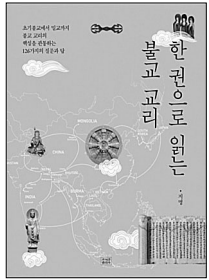


방대한 불교교리 한권에... 사전식 설명 지양

한 권으로 읽는 불교 교리

글 지명 스님 | 조계종총판사 펴냄 | 1만 7천원



교리서는 그동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었다. 하지만 주로 입문서나 사전식 교리 해설서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초보자를 위한 입문서라는 이유로 극히 협소한 주제만을 다뤘거나 사전식 설명을 나열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좀 다르다. 근본불교서 밀교까지 그리고 삼법인, 사성제, 십이연기 등 초기 불교 교리부터 화엄과 선, 정토까지를 중박 없이 총 망라했다. 더군다나 사전식 설명을 철저하지 양하고 공(空)이나 유식(唯識) 화엄(華嚴) 등의 교리를 실제 일어난 사건과 함께 풀어내 방대하고 깊은 내용을 '어렵지 않게,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선 이 책의 첫 번째 장점은 불교 교리 전반에 대해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 교리의 출발인 사성제와 십이연기를 시작으로 공(空), 유식, 화엄, 밀교, 정토, 선에 대해 전한다. 1장부터 7장까지 읽다보면 마치 '불교 시간 여행자'가 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대부분 불교 교리서가 방대함을 핑계 삼아 근본 교리의 일부 또는 선(禪)의 일부만 다루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교 교리 전체를 누락 없이 한 권에 담았다는 것은 무엇보다 이 책의 큰 특징이다. 특히 통상 불교 교리서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 정토와 밀교 등에 대해서도 다른 분야와 비슷한 분량을 할애해 소개함으로써 불교 교리를 이해함과 동시에 불교 발달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꾸몄다.

이 책의 두 번째 장점은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각종 예화와 사회 현상 그리고 사건을 교리 속에 녹여넣었다는 것이다. 어려운 불교 교리를 설명하면서 때론 옛날이야기, 때론 자신의 경험, 때론 독자의 이야기 등등 등장한다. 교리를 설명하며 용어를 나열하고 그 출전만을 뉘지던 여느 교리 책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런 점은 불교 교리가 실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걸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더욱 절절히 다가온다. 게다가 필요한 경우 각 교리 항목에 등장하는 용어 설명을 해당 페이지 하단에 추가했으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된 사진과 도표도 다수 첨부했다.

불교 교리 핵심 관통하는 126가지 질문 답
불교 교리 출발부터 화엄, 선, 밀교까지 이해 돕기위한 사진과 도표 다수 첨부

책의 세 번째 장점은 일반 독자들이 불교에 대해 오해하는 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준다는 것이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불교는 왜 고(苦)라고 주장하는가?"와 같은 독자의 질문은 다시 독자의 눈높이에서 친절히 설명되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공(空)이라는 주장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 아니냐?" 같은 오해가 섞인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를 제시하며 낱말이 교정된다. 물론 때로는 너무 자주 들어 어쩌면 철지난 유행가처럼 들리기도 하는 오해와 착각의 질문들, 예를 들면 "불교는 철학인가, 종교인가?" "불교는 숙명론인가?" "불교는 무신론인가, 유신론인가?" 하는 질문들은 아예

하나의 장으로 만들어 설명해 놓았다. 특히 마지막 장인 10장의 〈자주 하는 질문들〉코너를 읽고 나면 불교를 철학으로 오해하는 사례나 숙명론으로 폄해하는 사례, 그리고 불교가 자력인지 타력 종교인지 애매해 하는 상황에 대해 명확히 갈피를 잡아준다. 한마디로 불교는 '왜, 불교 교리는 어떻게'라는 물음에 시원한 대답이 필요하더라든 꺼낼 수 있는 '한 권'이다.

이 책이 나오게 된 시작은 이렇다. 1997년 7월 〈불교신문〉에 지명 스님의 '교리 산책'이 연재되기 시작했다. '사성제'부터 출발한 이 연재는 불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 주변서 일어난 일이나 사회적으로 벌어진 큰 사건들을 소재로 명쾌히 설명하면서 인기를 얻게 되었고 급기야 연장을 거듭한다. 2001년 1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연재된 분량만 해도 총 160회다.

김주일 기자

저자 지명 스님은?
부산 범어사 강원서 수학했고 동국대 불교학과 석·박사 과정을 마친 뒤 미국 템플대학 종교학과 석사·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의왕 청계사, 속리산 범주사 주지와 조계종 중앙총회위원을 역임했으나 지금은 안면도에 있는 안면암, 과천에 있는 안면암포교당 그리고 과산에 있는 각연사 등에서 수행과 포교에 힘쓰고 있다. 〈중앙일보〉 〈한국일보〉 〈불교신문〉, 월간 〈불광〉 등에 오랫동안 칼럼을 기고했다. 저서로는 〈깨침의 말씀 깨침의 마음〉(불교시대사, 1994), 〈무로 바라보기〉(오늘의 책, 2005), 〈진흙이 꽃을 피우네〉(해토, 2007), 〈당신은 나의 눈물겨운 인연입니다〉 등이 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행복을 짓는 나라, 부탄이 특별한 이유

어떤 행복

린다 리밍 지음 | 하창수 옮김 | 공출판 펴냄 | 1만 4천원



국민행복지수 1위의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탄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대중 그 정도일 것이다. 히말라야의 조그만 불교 나라 부탄은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국민의 대다수, 무려 97%가 행복하다고 말할까? 모르긴 해도 국민행복지수 하위의 불명예를 안고 사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참으로 궁극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생각은 거기서 멈춘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내친김에 부탄으로 훌쩍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부탄 바쁜 일상에서 놓치고 사는 것들이 무엇인지, '행복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정작 있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 오래된 문화 속에서 사는 것은 시간, 일, 돈, 자연, 가족, 타인들, 삶과 죽음, 한 잔의 차, 친절과 관대함, 세탁기로 빨래하기, 깨어남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까지 모든 것을 다르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준다. 나의 행복은 여기서 기인한다."

하지만 태어난 미국보다 부탄에서 더 오랜 시간을 살아온 그녀에게도 부탄은 여전히 "어떤 범주나 고정 관념으로 쉽게 해석될 수 없는 곳"이다. "경이로움과 수수께끼, 모순으로 가득 차 있고 혼란스러우면서도 신성하고, 변화무쌍하지만 놀랍도록 세속적인 곳. 장작 타는 냄새와 두엄 더미에서 풍기는 냄새, 청정한 산의 공기와 알싸한 고추 향과 그윽한 향 내음이 혼재"하는 곳이 또한 부탄이다. 그녀는 말한다. "만약 케케묵은 생각과 편견에서 기꺼이 벗어날 수 있다면, 부탄은 수많은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줄 수 있다"라고 하고, 하지만 모두에게 자신과 같은 극단적 처방을 권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꼭 세상 끝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저자 린다 리밍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서구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듯이 세계를 유랑하며 식견을 넓히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다 우연히 히말라야 구석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에 가게 되고, 그 뒤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뀐다. 물론 그때까지 그녀가 부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면 경관이 수려하고 국민 대부분이 행복을 느끼며 산다는 것 정도였다.

연젠가부터 유엔은 물론이고 많은 선진국에서 부탄을 모델 삼아 국민행복정책을 마련하고자 열을 올리고, 신비한 부탄의 비밀을 캐려는 미디어들의 취재 열기도 뜨겁다. 정교일치의 나라,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은 역사, 독립적이고 낙천적인 민족성 등을 우리가 몰랐던 부탄의 면면들도 하나하나 드러난다. 하지만 이 책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차원에서 부탄을 낱말이 파헤쳐 보여주거나 부탄 사람들의 속내를 들여다본 책이 아니다. 저자는 부탄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직접 몸으로 부대끼고 배우고 느낀 것들을 우리에게 담담히 들려줄 뿐이다. 세상에서 오묘되지 않은 곳 부탄이 특별한 이유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에 지친 우리만큼은 아니더라도 부탄 역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말한다. 그곳에서 배운 지혜들은 변함없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세상의 속도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조언
행복이란 무엇일까. 직장이 주는 안정감, 성공, 통장의 잔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생활, 타인들과의 관계 등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모두 다를

부탄 사람들 삶의 방식 매우 단순
단순한 존재 되는 법이 행복 비결

수 있다. 하지만 행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혹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하다. 저자는 자신이 부탄에서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들을 슬며시 들려준다. 스물두 가지 일화에 담긴 지혜나 조언들이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님에도 마음 깊이 와 닿는 것은 오로지 저자가 온몸으로 부딪치며 터득한 것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좀 더 단순한 존재가 되는 법을,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여유와 품위를 갖고 살아가는 법을, 자신을 환경에 맞추는 법을, 통제하려는 습관을 버리고 지나치게 압박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물처럼 흘러가는 법을 배운 것이다. 이것이 부탄에서 살면서 내가 배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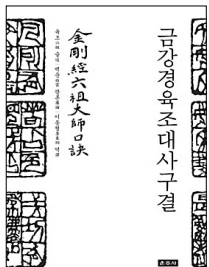
속도와 효율성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부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매우 단순하다. 저자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한 방식이라고 깨닫는다. 은행에서 돈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줄을 서야 하고, 세탁기를 고칠 부품은 커녕 신발 가게도 없으며, 한밤중에 낮은 짐승들과 집안에서 마주칠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시골 생활. 어찌 보면 심심하고 단조로운 생활이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마음 깊이 배려하는 친절이 생활 깊숙이 배어 있다. 삶의 고통을 함께하는 진한 동료애와 연민마저 느낄 수 있다. 앞서 말했다시피, 그렇다고 행복을 찾아서 부탄으로 떠나라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네들이 왜 행복한지를 어렵듯이 알 것 같다.

김주일 기자

육조대사는 <금강경>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금강경육조대사구결

육조 술 | 백은 광론 | 이동형 역 | 운주사 펴냄 | 1만 5천원



《금강경》은 한국서 가장 많이 읽는 경전이다. 이는 한국불교의 대표적 종단인 조계종이 《금강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선종의 최고 조사로 추앙받는 육조 혜능이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일화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역대로 고승대덕들은 반야부 경전에 속하는 《금강경》을 매우 중시했으며, 당연히 이에 대한 주석서와 법문들도 많이 나왔다. 그런데 선종에서 《금강경》의 중요성을 최초로 선양한 이는 바로 선종의 실질적 조조인 육조 혜능대사이다. 글자도 모르던 혜능대사는 도대체 어떻게 《금강경》의 한 구절을 깨침을 얻을 수 있었을까? 또한 우리는 《금강경》을 수시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왜 혜능대사와 같은 깨달음을 고사하고 경전이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걸까? 물론 사람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강경》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금강경》을 통해 활연히 대오했다는 육조대사는 과연 《금강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 책은 이러한 의문에 대해 육조대사의 입을 통하여 직접 알려준다.

이 책은 육조대사가 직접 구두로 설한 것으로 전하는 《금강경육조대사구결》의 온전한 번역이다.

이 책은 송나라 때 천태종의 나적(羅維)이 육조 혜능의 《육조대사구결》을 간행하고자 10여 년 동안 8종의 책을 모아 교감해 간행한 《금강경해의》를 저본으로 하고, 이와 함께 현대 대만과 중국 불교계서 선의 종장으로 명성이 높은 백운선사(白雲禪師)가 《육조대사구결》의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선적인 의미를 가미해 풀이한 《금강경해의광론》을 함께 번역하고 자세한 주석을 첨부함으로써 육조대사가 《금강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이했는가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육조 혜능대사의 풀이에 의한 《금강경》 핵심이 담긴 이 책은 불교, 나아가 선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반드시 읽고 공부해야 할 교과서와 같은 전적이라고 하겠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백일만 하면 힘이 생긴다!

선을 배우는 길

누구나 어디에서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선수행의 길라잡이.

‘고요히 비춤’을 바탕으로 삼고(목조선), ‘알아차림’으로 마음이 들뜸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위빠사나), “이 뭐고?” 하고 화두를 챙김으로써(간화선) 산만한 마음을 강한 집중으로 삼매에 들게 하여 무명번뇌를 조복시켜 깨달음에 이르는 길, 이것이 위빠사나 수행의 장점과 사마라 수행의 장점을 잘 살린 ‘위빠사나화선’이다.

간화선 수행법은 남의 나라를 침공할 때 특공대를 보내어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생포하여 항복을 받은 다음 그 나라의 군대와 배성을 조복 받는 것처럼 속전속결의 법이다. 위빠사나 수행법은 작전을 펴서 적의 군대를 무력으로 점점 섬멸하여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붙잡아 항복시키는 것과 같다.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을 병행하는 법은, 처음엔 적의 군대를 작전을 펴 무력으로 점점 섬멸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특공대를 보내어 수도로 쳐들어가서 왕을 생포해 항복을 받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 대현 지음 / 302쪽 / 값 15,000원

천근만근 짐을 버려놓은 듯한 홀가분함, 솟아오른 해가 천지를 환히 비추는 것 같은 충만한 존재감, 너와 나의 경계가 일시에 사라져 버리는 대자유함, 그 같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선승의 길

가장 행복한 나눔 — “부처님의 생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 대현 스님 지음 / 280쪽 / 값 12,000원

오직 수행으로만 일관하여 50안거를 성만하신 대현 스님의 수행기와 바른 참선법.

전강, 함곡, 경봉, 성철, 송담, 진제 스님 등 선지식을 뵈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맞은 것처럼’ 공부 농사에 영양분을 공급 받았던 내력과 함께 간화선 수행자들이 범하기 쉬운 병통을 지적하고 심우도에 따라 기초공사를 다져 하루종일 화두와 함께 가고 오고 행하는 길을 가리켜 보인다.

법보시를 지원합니다.

산정 정각사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1440-28

010-9772-4588
055) 972-1109